

사회

지구대·파출소 젊은 경찰관이 없다

광주 40곳 80%가 40~50대 고령화... 범인 검거 등 대처능력 떨어져

기동대·형사과 등 우선 배치된 20~30대 순환근무 시급

광주북부경찰 A지구대 P(44) 경사는 지난달 말 인사에서 현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그는 팀원들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 11명의 팀원 가운데 20~30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팀원 모두 40대 이상이었다.

그는 “올해 나이가 마흔 넷인데, 내 밑으로 단 한 명 있다. 최일선 치안 현장을 누벼야 할 지구대 직원들의 나이가 고령화 되면서 용의자 제압과 검거 등 대처능력은 떨어진다”며 “젊은 경찰관과 고참 경찰관의 인적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7곳)와 파출소(33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범죄자의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지만, 경찰관들의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94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97명(29.55%) ▲30대 155명(15.42%) ▲20대 59명(5.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고사하고 아예 40대 이상으로만 꾸려진 팀들도 적지 않다. 남부경찰서 지구대의 경우 20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경찰서 A지구대는 11명의 팀원 모두가 40대 이상으로 꾸려진

■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 연령대별 현황 (단위:명)

전체 직원	지구대 및 파출소 직원	20대	30대	40대	50대
동부	344	133	4	14	77
서부	484	207	15	47	92
남부	320	133	-	18	72
북부	636	302	31	25	145
광산	450	230	9	51	108
합계	2234	1005	59	155	494
		(100%)	(5.87%)	(15.42%)	(49.15%)
				(29.55%)	

* 지구대·파출소 총 40곳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 이유는 광주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등 상급기관에서 20~30대 젊은 경찰관들을 기동대나 수사과·형사과에 우선 배치하고 있는 데다, 기동력과 신중 범죄 수법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젊은 경찰관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구대가 고령화되면서 각종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고령화된 조직은 노련하지만 기동력은 떨어지고 신

중 수법에 대한 적응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각 지구대에서는 ‘형사사범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상급기관으로 전송하는데, 나이 든 경찰관의 경우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 술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의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이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도 잦다.

북부경찰서 B지구대 K(47) 경사는 “범죄예방활동과 주취자 행패, 강력범죄 초동조치 등 모든 것을 각 지구대 경찰관들이 처리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어려운 점이 많다”며 “솔직히 현장에서 젊은 용의자들이 도망가면 아예 쫓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비정한 남편

5년 전 부부싸움 아내 살해 암매장한 50대 예금 인출위해 가출신고... DNA검사로 딸미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 발생 5년 만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은 7일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김모(55·담양군)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낮 12시20분께 장성군 북하면 한재골 한 계곡에서 아내(당시 45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인근 웅덩이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자신의 여자 관개로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났고, 아내의 사체를 웅덩이에 넣은 뒤 주변에 있던 돌과 나무 등으로 가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체가 유기된 장소는 수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7살짜리 아들의 유골이 뿌려진 곳이며, 김씨의 아내는 이날 일부러 아들의 유골이 뿌려진 장소를 남편 김씨와 함께 찾아와 실득하던 중 말싸움 끝에 폭행으로까지

번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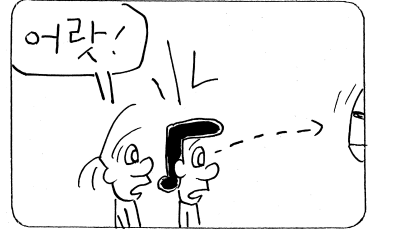
특히 김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가출 및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 6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께 가출인 신고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암매장된 김씨의 아내 사체는 가출 신고된 지 2개월 만인 지난 2009년 5월께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채 우연히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가출 및 실종 신고된 여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큰 딸(30)과 사체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남편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들였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영호기자 yongho@

나원침 (8238)



‘짝퉁’ 비아그라 대량 유통 중국인 징역 1년 6월 선고 광주지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해영 판사는 7일 이른바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를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전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짝퉁’ 비아그라 등을 판 한국인 이모(여·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판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양이 많고, 부당이득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3개월여간 26차례에 걸쳐 택배나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16만6000여알을 4000여만원에 팔고 수만알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엄마 귀금속 훔치고 친구가 팔아주고

○...어머니의 귀금속을 훔친 고등학생과 이를 금방에 대신 팔아준 친구, 길에서 주운 남의 신분증을 빌려 준 친구 등 ‘철없는’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17·고교 3년)군은 지난 6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17점의 귀금속(시가 600만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훔친 귀금속을 친구 3명을 통해 금방에 내다판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이들은 또다른 친구 2명이 우연히 길에서 주운 성인의 신분증 2장까지 범행에 사용해 총 6명의 고등학생이 각각 절도와 장물알선, 점유이탈물류령 혐의로 입건.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설 연휴에 쌓인 쓰레기 7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원들이 우산동 말바우 시장 주변에서 설 연휴 동안 미처 치우지 못한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매매 전단지 차 바닥에 구멍 뚫고 살포

서부경찰 40대 구속

최근 성매매 전단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량 바닥에 구멍(사진)을 뚫어 전단지를 살포한 성매매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업주는 성매매 전단지 배포에 고등학생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41)씨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또다른 박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김모(18·광주 모 고교 3년) 등 고교생 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에 성매매광고 전단지 수만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지름 6cm 가량의 구멍을 뚫고, 길이 40cm 정도인 PCV파이프를 꼽은 뒤 파이프에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집어 넣어 길가에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

휴대전화 훔쳐 집 빼내 사용 동부경찰, 고교생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7일 만원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뒤 타인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어 사용한 혐의로 박모(18·광주 모 고교 2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을 경유하는 81번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김모(16·광주 모 중학교 3년)군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내장된 유심칩을 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인터넷 유료게임 등을 다운받는 등 1개월 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훔친 뒤, 타인의 유심칩을 넣으면 타인의 휴대전화로 복제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한 요금까지 타인에게 지불된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새벽 귀가 여성 폭행 돈 빼앗은 3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7일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정모(30·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새벽 5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조모(여·23)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현금 4만원과 휴대전화기 들어있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안타까운 죽음

유독가스 마신 3세 아이·야산에 불 나 80대 숨져

7일 오전 11시께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김모(73)씨의 집에서 유독가스 발생해 잠을 자고 있던 손자(3)가 숨지고 김씨와 아내(65), 아들(35) 등 일가족 3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의 집 아궁이에서 페인트가 묻은 장작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번을 당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

사 중이다.

또 같은날 낮 12시40분께 강진군 대구면 야산에서 불이 나 최모(여·83)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최씨가 고춧대를 태우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h@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매일